

- 주요 뉴스: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 금년 3~4회 금리인상 전망. 경제여건 고려할 방침
 - 독일 중앙은행 총재, 금년에 ECB의 첫 금리인상이 가능
 -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과도한 금리인상 시도를 경계
 - 일본은행 정책위원, 충분한 임금상승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화정책 지속할 필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월 소비자물가 전망과 국채매도 진정 등이 영향

주가 상승[+1.5%], 달러화 약세[-0.1%], 금리 하락[-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국채금리 하락과 저가 매수 유입 등이 주요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4/4분기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1.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그 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 증가로 소폭 하락
유로화가는 0.1% 상승, 엔화는 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양호한 국채입찰 수요 등이 배경
독일은 ECB 라가르드 총재의 매파적 시각 약화 등이 지속되며 5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95.2원, -2.3원) 0.2% 하락, 한국 CDS 강보합

		2/9일	2/8일	전일대비			2/9일	2/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587.2	4,521.5	1.45%	국채 금리 10y	미국	1.94%	1.96%	-2bp
	유럽	473.33	465.34	1.72%		독일	0.21%	0.27%	-5bp
	중국	3,479.9	3,452.6	0.79%	CDS 5y	한국	27bp	26bp	0bp
	일본	27,580	27,285	1.08%		중국	51bp	52bp	-1bp
	한국	2,768.9	2,746.5	0.81%	위험 지표	EMBI+	-	413	-
환율	달러지수	95.55	95.64	-0.10%		VIX	19.96	21.44	-6.90%
	유로화	1.1425	1.1415	0.09%		WTI유	89.66	89.36	0.34%
	엔화	115.52	115.55	0.03%	원자재	구리	463.8	446.1	3.97%
	위안화	6.3627	6.3665	0.06%		금	1,833.4	1,825.9	0.41%
	원화	1,196.5	1,197.7	0.1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 금년 3~4회 금리인상 전망. 경제여건 고려할 방침

- 보스틱 총재는 금년 3회의 금리인상을 지지하지만, 점차 4회 금리인상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다고 발언. 대차대조표 축소는 강력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정도로 강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
- 1월 소비자물가는 연간 기준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으나, 월간 기준으로 12월 대비 둔화될 수 있다고 첨언. 시장에서는 금년 5~6회의 금리인상을 전망하고 있어, 보스틱 총재의 이번 전망은 상대적으로 덜 긴축적인 것으로 평가
- 한편 클리블랜드 연은 메스터 총재는 2015년과 비교하여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고 노동시장의 수급도 팽팽하기에(tight)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 아울러 대차대조표 축소의 속도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부연
- 또한 3월 금리인상을 지지하지만, 현재 상황이 0.5%p의 인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향후 인플레이션 수준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나, 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상무장관, 중국의 무역합의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계획

- 레이몬도 장관은 현재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 또한 중국이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

■ 미국 '21년 12월 도매재고, 전월비 증가. 공급 차질 완화 등을 시사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달 도매재고는 전월비 2.2% 늘어 전월(1.4%) 및 속보치(2.1%)를 모두 상회. 이는 이번 달 발표 예정인 '21년 4/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상향될 수 있음을 의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방안을 제안

-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 관련 기본적 자료(펀드 성과, 수수료 등) 공개를 의무화하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 골드만삭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년 말에 2.25%까지 상승할 전망

- Praveen Korapaty 스트래지스트는 해당 국채금리가 '23년 말에는 2.4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 이는 연준의 통화긴축과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

■ 독일 중앙은행 총재, 금년에 ECB의 첫 금리인상이 가능

- 요아킴 나겔 총재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다만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자산매입 중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
- 한편 ECB 슈나벨 이사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과도하게 상승 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높이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는 없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

■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과도한 금리인상 시도를 경계

- 휴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바람직하며, 특히 경제지표들에 의존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 인플레이션 둔화 징후가 있으면,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하며,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 금리인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

■ 일본은행 정책위원, 충분한 임금상승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화정책 지속할 필요

- 임금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기업이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된다고 지적. 이번 발언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을 위한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2/9 현지시각 기준)

- 독일 '21년 12월 무역수지(억유로): 68, 11월(108), 예상치(104)
- 호주 2월 웨스트팩 소비자신뢰지수(전월비): -1.3%, 1월(-2.0%), 예상치(-)

■ 주요 경제 이벤트(2/10 현지시각 기준)

- ECB 데 쿼도스 부총재 및 레인 이사,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 강연
- 미국 1월 소비자물가, 2월 첫째주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 중국 1월 M2 통화공급, 신규대출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주요국 중앙은행, 물가 대응책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상실 - Financial Times

(Markets lose trust in central banks)

- 선진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의 초기 단계에서 시행해야 할 조치를 지체.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물가 오름세는 유동성 과잉과 공급 부족 등이 원인. 과거 독일 중앙은행은 유로화 출범 전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과 성장세 유지에 성공
- 최근 중앙은행은 잠재 생산능력과 총수요 차이를 고려하여 인플레이션 대책을 수행. 향후 위험은 기업의 생산 확대와 노동시장 안정화 기대에 대한 전망의 오류. 이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긴축을 강화시켜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할 소지

■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글로벌 공급망 충격 완화 및 고물가 해결 위해 필요 - 블룸버그

(Why the world needs China's Covid-Zero policy)

- 유수의 해외기관들은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과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코로나 변이 대응에 나선다면 광범위한 코로나 확산으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
- 중국은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정상적인 제조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수출이 최근 2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 이러한 중국의 꾸준한 수출이 없었다면 미국의 공급부족과 물가상승은 더욱 심화되었을 가능성

■ 미국 주택경기 둔화 전망, 금리인상과 공급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 - 블룸버그

(The Housing Party Is Starting to Wind Down)

■ ECB의 통화긴축, 역내 부채위기 방지를 위해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 - Financial Times

(ECB Policy tightening raises risks of 'financial accident')

■ 유럽 은행권, 시장금리 상승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 블룸버그

(The Bad Banks That Are Quietly Making Good)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